

김해 3개 단체, 동상동 주거환경 봉사 맞손

✎ 조주영 인턴기자 | ⓒ 승인 2020.05.26 11:06



▲ 동상동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김해 3개 단체가 자원봉사협약을 체결했다.

김해모닥불집수리봉사회 등 집수리 자원봉사협약 체결

김해시 모닥불집수리봉사회(회장 강대규)와 너나들이 인제대 봉사동아리(회장 강동한), 동상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공동회장 조재규, 박재문)가 동상동 거주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구도심의 동상동은 오래된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일대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개 단체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모닥불집수리봉사회는 10년 전부터 동상동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너나들이 인제대 봉사동아리는 올해 인제대 실내건축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학술봉사동아리이다. 동상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를 연계, 이번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이들 3개 단체는 협약식에 앞서 지난 17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계로 500번길 9의 40일원 노후 주택가 골목 양쪽 외벽 120m를 페인트로 도색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3개 단체 대표자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 협약식을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해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영 인턴기자 report@gimhaenews.co.kr



조주영 인턴기자 report@gimhaenews.co.kr